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6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不二(100x100)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인간과 자연 - ①
꽃은 흙에서 핀다	09	분꽃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12	화. 참지 말고 내거나 다스리거나!
일요특강	16	무소유와 생태운동 ③
옛날의 금잔디	21	지금도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26	다시 한 번 살아보자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28	만남
숨어서 피는 꽃	32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따뜻한 이야기	36	마음이 따뜻하면 꽃은 저절로 핀다
향기나는 우체통	38	2010년 그 해, 엄마와 나의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60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인간과 자연 - ①

글·법 정(法 頂)

1

자연은 스스로를 조절할 뿐 파괴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문명의 인간이 자연을 허물고 더럽힌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도외시한 무절제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간생활의 원천인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말할 수 없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거대한 물질의 더미에 현혹되어 천혜天惠의 고마운 자연과 환경을 사람의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오늘의 현실이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아득한 옛적부터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오고 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밝고 따뜻한 햇살과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논밭의 기름진

흙,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사랑스럽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그리고 생기에 넘치는 숲…….

온종일 주위섬긴다 할지라도 자연의 혜택을 말로는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 인간의 대부분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곁에 이런 자연의 은혜가 없다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인데도, 현대인들은 고마운 자연 앞에 너무도 무감각하다.

그저 많은 것을 차지하면서 편리하게만 살려고 하는 약삭빠르고 탐욕스런 현대인들은, 흑심하게 빼앗겨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인간과 자연은 빼앗고 빼

앗기는 약탈과 주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천적인 삶의 터전이고 배경이다. 문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최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자연과 인간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안에서만 우리들 인간도 덜 황폐되고 덜 오염되어, 인간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지치고 상처받은 인생이 기대고 쉬면서 위로받을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죽은 후 차디찬 시신이 되어 묻히거나 한줌의 재로 뿌려질 곳도 또한 이 자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이 날로 격심해져 우리들 삶의 터전이 전에 없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971년에 발표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던 '로마클럽 보고서'는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다. 핵전쟁의 공포와 함께 인구와 식량의 문제, 공업화에 따른 빈부의 격차,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이름 아래 오늘의 세계가 지구상의 생명들을 모조리, 그것도 수십 차례에 걸쳐 죽이고도 남을 가공할 양의 핵폭탄을 만들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불행한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산과 바다와 강과 토지와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국제학

술회의를 갖게 된 것도, 인류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필수 불가결한 수많은 것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베풀어주듯이 그렇게 준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선물을 받아서 제대로 적절히 사용하면 인간의 생활에 빛이 나고 유익하다. 그러나 그 선물을 과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상응한 배은망덕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구가 지니고 있는 핵연료는 인간끼리의 살상이나 지구의 파멸을 위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이 개발한 핵무기 앞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를 지나치게 소비함으로써, 인간이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연료의 지나친 소비는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온실로 만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 보고되고 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농산물의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며 경고다.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와 제 분수를 모르고 너무 오만해진 데서 온 인과응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고, 넘치는 것은 덜 참만 못하다. 적은 것일 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 영국의 경제학자 F. 슈마허가 지적했듯이, 무한한 성장은 유한한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

## 3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모

성일 뿐 아니라 위대한 교사다. 자연에는 그 나름의 뚜렷한 질서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질서가 있고, 뿌려서 가꾼 대로 거두는 수확의 질서가 있다.

가뭄이 심하면 비를 내려 해갈시키고, 홍수가 나면 비를 멎게 하여 날이 든다. 바람을 일으켜 간척 있는 것을 풀어주고 낚은 것을 떨어뜨리며, 끊임 없이 흐르게 하여 부패를 막는다. 밝은 낮에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털어주기 위해 어둠이 내려 쉬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에 우리들 인간은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나무와 물과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다. 그것은 커다란 생명체이며 시들지 않는 영원한 품 속이다.

자연에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

악이 있고 침묵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상이나 종교는 벽돌과 시멘트로 쌓아 올린 교실에서가 아니라, 때 묻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움트고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무들이 청청한 가지를 펼치고 있는 숲 속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변에서, 또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침묵의 시막에서 위대한 사상과 종교가 움트게 됐다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육신에 탈이 나거나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지만, 영혼이 지쳐 있거나 병들어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가도 쉽게 낫지 못한다. 어린 애가 엄마의 품을 찾아가듯이 자연의 품속에 안겨,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질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인 노이로제는 약물 치료로는 나올 수 없는 문명의 병이다. 자연과 더

불어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을 통해 서만 정신 상태는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대지와 수목과 화초와 물을 가까이하면 사람의 정신상태가 지극히 평온해진다. 조금씩 서둘 필요도 없이 질서정연한 생명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팍한 지식 같은 것은 접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침묵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이 침묵 속에서 창조의 비밀과 사랑의 신비를 캐낼 수 있다. 하나의 씨앗이 대지에 묻혀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그런 인내와 침묵이 자연 속에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원초적인 침묵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실체를 인식하려면 무엇보다도 침묵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이전에 무거운 침묵이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자연의 말이고 우주의 언어다. 뛰어난 사상과 위대한 종교는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를 치는 시끄러운 언어에서가 아니라, 자연의 침묵에서 싹텄다는 사실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막의 교부들이나 불교의 선사들이 우주의 언어인 이 침묵 속에서 성장하면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은, 말을 참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침묵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분꽃

글 • 김기철(도예가)

소 키우는 시골에 살면서 쇠똥내가 싫다고 하는 것은 가장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는 쇠겨름더미가 있어 그 곁을 지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이 찌그러진다. 자기네 마당 한쪽에 해놔도 좋으려면 하필이면 남의 집 턱밑에다 거름더미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질척한 거름 더미가 한꺼번에 악취를 풍겨내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저녁을 먹고 어둑해진 마당가에 나갔더니 예의 그 못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이었다. 마당가에서 피어난 분꽃의 향기가 아닌가? 나는 그 살짝 부딪히는 뜻밖의 꽃내음에 뭔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동안을 잊고 살았던 고향의 체취였다.

지금부터 4, 50년 전의 우리 고향은 문자 그대로 원시생활을 방불케 하는 미개와 가난의 표본 같았다. 그래도 거기엔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명화의 한 토막처럼 떠올라서 가슴을 설레게 한다. 한여름 저녁나절이 되면 등에서 쉰 땀내를 풍풍 풍기는 아낙네들이 저녁거리 보리쌀을 이고 샘가로 모여든다. 그네들은 거친 보리쌀을 팔이 떨어져라 으겨대며 입방아를 찧고 시시덕대는 것이다. 저녁 햇살이 화사하게도 이 선내 나는 여인네들을 내리쬐고 샘가 돌담울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 분꽃 위로 찾아든다. 그러면 역겨운 땀내는 물러나고 샘 언저리는 어느새 포근한 분꽃 향취로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 분꽃은

\* 이 글은 1988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아카데미하우스와 힐튼호텔에서 '후기 산업 시대의 세계 공동체'라는 대주제 아래 열렸던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 제5분과 '자연의 훼손과 재창조'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요지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토록 곱고 향기로운 꽃이 저녁 무렵부터 몸단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알래야 알 길이 없다.

그곳 마을 앞 주막에는 ‘곤자리 갈보라’는 빼빼 마른 중년 여인이 머슴애 하나를 키우면서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못생긴 곰보에다 성질도 사나워 툭하면 악을 쓰고 싹박질을 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면 그 억척바위 같은 말상다귀 얼굴에 다 뺨양계 분을 바르고 머리는 기름을 들어부은 듯 반질반질 빛어 넘기고 주막 뒷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 요란한 분냄새는 신작로까지 풍겨 나와 사내들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용케도 분꽃을 울안 가득 심어놓고 외롭지 않게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았다. 분꽃들은 너도나도 다투어 화사한 꽃잎을 열고 그 향긋한 내음을 저희 주인 못지않게 날려댄다. 빨간 눈, 노란 눈, 이 두 빛깔이 뒤섞인 갖가지 꽃송이들이 한꺼

번에 어우러지면 그 햇빛박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갈보일망정 꽃가마 속의 여왕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하기는 전생애 꽃같이 어여쁜 수많은 시녀들을 거느리며 영화를 누리던 여왕이었을지 누가 알라? 그런데 지금쯤 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거기서도 어느 길가에 주막을 차려놓고 저녁이 되면 못 남자들을 끌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고 목을 빼고 앉아 있는 가련한 여인일지, 아니면 한 송이 분꽃이 되어 그 곱고 아리따운 자태로 천상의 이슬을 머금고 밝은 달, 반짝이는 별과 더불어 맑은 기쁨을 나누고 있을지…….

나는 아무래도 분꽃만한 향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옥잠화, 모란, 장미 심지어 소심란 향기까지도 이만 못한 것 같다. 분꽃의 향기는 연하고 그윽하다. 여기서는 티 없이 순박한 촌색시 같은 여운을 남겨주고 달콤한 애수를 느끼게까지 한다. 남들은 꽃잎을 다물 때 유독 혼자 피기 시작한다. 석양의 서늘한 햇살이 마

지막 숨을 거둘 무렵 그 따스한 자태를 우주 공간을 향해 열고 지상의 하고많은 사연들을 하소연하는 것 같다. 하긴 박꽃도 저녁에 피지만 이것은 심심하다. 분꽃은 빛깔마저 맑고 곱다. 마치 느티나무 고목 같은 줄기는 맑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면서 생동하는 건강미를 보여준다. 더구나 한 포기애 빨강 바탕에 금가루를 뿌린 듯이 바늘 끝 같은 노란 반점이 무늬를 이루고, 또한 가지는 기하학적인 선으로 빨강노랑이 엇갈려 초현대적인 추상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마치 확실적인 전체주의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민주사회의 이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방금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주둥이 같다가 꽃잎이 벌어지면 나팔모양이 되어 오묘한 음악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터지는 것 같다.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씨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흑진주를 박은 여인의 백금 반지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 줄기에 수많은 이 박힌 이 생명체인 꿈틀대

는 흑진주는 지상에 내려앉은 천체의 구조 같기도 한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 분꽃은 밤새껏 어두운 공간 속에 활짝 피어 꽃 잔치를 벌이다가 아침이 되어 속세의 산란한 햇빛이 에워싼다 싶으면 오므려버리고 만다. 그런 다음 예뻐지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백옥같이 고운 분가루를 남겨주는 것이다.

요즈음 나는 해 질 무렵이 되면 마당가에 심어놓은 분꽃 곁으로 간다. 그리고 꽃을 들여다본다. 수십, 수백송이의 꽃이 저마다 잎을 열며 반긴다. 어찌 그 하나하나가 그리도 귀엽고 예쁘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어느새 내 마음은 수십 년 전 때 묻지 않은 고향을 향해 달리고 잊혀졌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난다. 결국, 나는 빛깔과 향기와 추억의 세계를 꿈속인 양 마냥 누리고 있는 것이다.

## 화, 참지 말고 내거나 다스리거나!

글 • 고희희(공감대화 개발원장)

한국인만 유독 많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한국 특 유 증후군’으로 인정한 이 병의 이름은 ‘화병’입니다. 정식병명도 ‘Hwa-Byung’으로, 한국발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병은 우리나라의 중년여성에게 많으며, 그 증상은 속이 답답하고, 초조하며, 우울해지고, 머리 위에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를 내버려 두면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협심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중년여성에게서 화병이 많을까요? 화를 참아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딸을 시집보내면서 어머니가 해주는 말이 ‘병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이었습

니다. 참고 살아라 하는 말이겠지요. ‘참을 인(忍)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보는 사회에서 딸로서 참고, 아내로서 참고, 며느리로서 참고, 엄마로서 참다 보니 화병의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느낌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 않거나, 바라는 것과 다르게 되어가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공감대화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공감대화법입니다. 공감 대화에서는 화가 날 때 ‘화를 낸다’는 것

입니다.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왜 화가 났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공감 대화로 화를 내기 위하여, 즉 표현하기 위하여 4가지 단계로 훈련해야 합니다.

1. 잠깐 멈추고 크게 숨을 쉰다.
2.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인식한다.
3. ‘바람’을 찾는다.
4. ‘바람’을 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올라오는 ‘화’를 표현한다.

먼저 평소에 화났을 때 하던 행동들을 모두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 크게 숨을 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생각, 나를 비하하는 생각 등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을 인식하며 충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후에는 여러 생각은 슬며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어서 화가 난다는 것을 인식한 후 화를 내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찌푸리는 등의 알맞은 표현으로 화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서, 바라는 것과 다르게 된 상황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공감 대화에서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하며 아래 빈칸에 화내는 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자녀에게 여러 번 학교에 갈 때와 집에 왔을 때 공손히 인사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안 하고 갔고, 학교 하여 집에 왔을 때도 그냥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 4단계 : 숨을 크게 쉬고, 올라오는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인식하신 후 ‘바람’을 찾으세요. 그 후 화가 났다고 말하며, ‘바람’을 말하세요.

\* 화내는 말 : \_\_\_\_\_  
\_\_\_\_\_

억제된 감정은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병의 원인을 스

트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서로 작용하므로 당연한 이론이겠지요. 화를 참는 것보다는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는 것 또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다스려지는 화는 점차 횡수가 줄어들고, 끝내는 '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는, 위의 4가지 방법 중 '2.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인식한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가 난 상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적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난 상태를 자세히 적어 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의 하나는 삼독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삼독은 탐진

치 즉, 탐욕(貪慾)·진에(瞋恚)·우치(愚癡)를 말합니다. 탐욕은 욕심내는 마음이고, 진에는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우치는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없애고 지혜로워지면 탐욕과 진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어른에게 공손히 인사하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반듯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새겨 듣고 실천하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바람을 정확히 말하면서 화가 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부터는 인사를 공손히 하고 다니기 바래.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노력 좀 해볼래?' 라고 부탁으로 끝맺으시면 어떨까요?

어른이 밖에 나갈 때 자녀가 집에 있다면 눈을 맞추며, '다녀올게.' 라고 정답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에 자녀가 집을 나설 때도 눈 맞추고 인사하기가 수월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수나무 잎이 연노랑으로 물들어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저녁 날이 춥습니다.

저녁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공감 대화로 편안한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 가족의 마음을 여는 공감 대화법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 원장)

10월 23일(넷째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대화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의사소통 방식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부부 및 자녀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존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자존감이 높은 가족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통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대화 내용을 직접 적어보고 역할 놀이를 진행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대화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10월 특강은 현재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고현희 원장님을 초청하여 공감 대화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특히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권해드립니다.



## 무소유와 생태운동 ③

글 • 김종철(문학 평론인)

오늘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 가서 보니 「녹색평론」 창간호부터 이번 호까지 짝~악 꽃혀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새삼스럽게 법정 스님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 생전에는 법회 중에 가끔 녹색평론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녹색평론 좀 보내달라고 해서 독자분들이 상당히 늘었는데 요즘 스님이 안 계시니 저희 독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을 왜 하느냐? ‘죽음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이랬거든요. 플라톤만 하더라도 노동하고

일하고 평범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관념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6세기 유럽에 문헌을 보면 농민들의 경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알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명상생활 수십 년 했다는 사람도 자기 죽을 때는 모르더군요.

그런데 그 농민들은 안다는 겁니다. 자기 죽기 열흘이나 보름 전에 자기 밭에다가 구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배 속에 있던 모습으로 죽을 때도 그 모습으로 웅크리

고, 밥을 안 먹고 며칠 있다가 고요히 가는 거지요. 자연과 함께 일하고 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귀족들처럼 외롭게 늘 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사랑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억울한 겁니다. 돈으로 절에 끊임없이 시주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부처님이 내 말을 들어줄런지 안들어줄런지……. 그러나 부처님이 시주받아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종로 바닥 상인 수준이지 무슨 부처님입니까? 돈 없어도 얼마든지 부처님이 봐줄 사람 봐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 아닙니까?

제가 ‘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끝머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에서 농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 벡타이를 맨 어느 분

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틀린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얼마나 남아도는데 식량 대란이 온다고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쌀이 남아서 정부에서 얼마나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서 꽤 여론을 형성하는 위치에 있다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쌀이 왜 남아 돌아오고 있습니까? 쌀을 안 먹고 엉뚱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젊은이들이 쌀 먹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동아시아 농민사회가 1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서양의 농학자들이 감탄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서 1만 년 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올 수 있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요. 서양에서는 밀 농사를 짓는데 토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전

채 농토의 약 4분의 1의 표토 층이 있어야 작물이 자라거든요. 지구라는 게 무한히 깊은 데까지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가 살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표토 층이 지금 불과 몇 인치에 불과합니다. 4분의 1이 사막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화학 농법, 기계 농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농기구 회사들, 기계회사들이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현대 농법을 적용하다 보니 땅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농약, 기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선각자들이 19세기 말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19세기부터 비료 같은 건 남아메리카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미국 농무부에 토양관리국장이라는 사람이 조선, 일본, 만주를 둘러보고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4,000년간의 농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자기는 동양에 가서 보고 탄복했다. 동양에 가보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토양을

관리하더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분을 거름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축의 분뇨를 쓴다는 건 알지만, 인분을 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분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인구가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분을 쓰지 않고 강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오염됩니다. 양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산소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오랜 옛날부터 삭히고 발효시켜서 농토로 넣어줬어요. 농토로 넣어주면 지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물을 뽑아먹으면 땅에 있는 양분을 작물을 통해서 먹게 됩니다.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순환을 통해서 4,000년이 아니라 만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니 땅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논농사는 표토가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논이라는 게 기후를 통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논이 댐 10배 이

상의 물 저장 효과가 있습니다. 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쌀이라는 건 밀이랑 달라서 밀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밀은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쌀은 완전한 식품입니다. 매우 고귀합니다. 땅도 살리고 사람한테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의 품성에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대체로 정서가 정적인데 쌀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다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행을 하는 동안에 채식을 계속하다가 우유를 몇 잔 먹으니 수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잡념이 생기고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 단식한 후에 경험해봤는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음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세포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된장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쌀도 안 먹고,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집집마

다 다 자기 부모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같이 등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지구력도 없고 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밥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으면 식당에 가면 오만가지 다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모르는데, 이 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밥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과 별과 바람과 비가 땅과 결합해서 종합예술품으로써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이 해월 최시형 선생님이 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萬事)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압축하고 있는 게 절간에서 공양(供養)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하늘과 농부와 별과 바람과 비가 결합해서 하나의 재물이 돼서 나를 모시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저는 요즘은 타락해서 별생각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습니다만, 제가 녹색평론 초창기에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이런 생각 하면서 밥을 먹으면, 밥알 하나하나 씹는 것이 황홀하고 희열이 생깁니다. 나한테 희생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밥 아껴라, 설거지할 때 밥풀 함부로 하지 마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고 경건해집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님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관계는 하늘이 하늘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돼 있다.' 그 분이 말하는 하늘은 모든 생물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하늘의 정기 없이,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상사에 들어와서 보니 경내에 200년 되는 느티나무에 보호수라는 안내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누굴 보호하는 걸까요?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책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저런 나무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 습니다. '나무님 나무님' 해야 합니다. 얼마나 의젓합니까? 나무가 난리 칩니까? 나무처럼 의젓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면 후생에 소나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녹색평론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25년이 지나니 타락해서 요즘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소가 길상사이고 '맑고 향기롭게'에서 초청 해주셨기에, 법정 스님을 생각하며 저도 경건해지고 싶어서 자신도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5년 10월 25일 김종철 교수  
일요특강 정리

## 지금도 사랑 속에서

글 • 윤언덕(작가)

지난주는 차를 타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지나다 큰길 근처에서 코레일의 '가야역이란 안내판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부속 건물이 여러 채 있었는데 유치원과 직원 사택, 휴게 시설로 여겨졌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릴 때 보았던 철도청의 건물들이 그 위치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물자가 귀하고 가난했던 그 시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마다 목욕하는 일이 큰 숙제였는데 아버님은 당신이 근무하는 철도청 가야역 그곳의 직원 목욕탕에서 아들 세 명을 씻기셨다. 우리 형제는 역사(驛舍) 옆의 철도청 직원 목욕탕에 목욕하러 갈 때마다 그곳 경비원의 제지를 받곤 했고, 목욕탕 안에서는 여러 철도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곤 했

다. 그것은 우리 형제로서는 마치 거기 취급받는 느낌이어서 '죽어도 그곳에 목욕하러 가지 않겠다'고 양버티곤 했던 기억이 낡은 사진처럼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니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질수록 당시 아버님에 관한 소소한 기억마저 따스하게 다기와 '철도에 관한 많은 것이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느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철도원>일 것이다.

영화 <철도원>은 1999년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로,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이 연출하고 다카쿠라 켄과 히로스에 료코가 연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본 작가 아사다 지로의 단편 소설집 <철도원>

의 표제작 단편소설로서,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영화 <철도원>을 본 것은 내 나이가 사십에 가까울 때였는데,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돌아가신, 어렸을 때 아버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멍멍해지고 또 따스한 기억이 들기도 했다.

영화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충 이러하다.

평생 하얀 눈으로 뒤덮인 시골 마을 종착역, 호로마이역을 지켜온 철도원 오토 마츠가 주인공이다. 17년 전 겨울 어느 날, 아기를 가졌다며 그에게 달려온 천진난만한 아내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났기에 부부는 '눈의 아이'라는 뜻인 유키코(雪子)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행복은 잠깐이다. 유키코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갑작스러운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아내 시즈에마저 깊은 병을 얻어 유키코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버린다.

세월은 흘러, 오토가 정년퇴직하는 날 아침이다. 철길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오토 마츠는 인형

을 안고 있는 낯선 여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된다. 소녀는 처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웃으며 친숙하게 인사를 건넨다. 그 소녀는 바로 죽은 딸 유키코다. 그리움이 지나치면 현실로 되는 것일까? 딸의 혼령이 사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타난다. 그간 힘들어도 꾀꾀하게 일해 온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딸은 다 자란 여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새하얀 눈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배경이었던 영화인데 눈마저도 따뜻하게 보였던 그 영화가 종종 생각나곤 한다. 지금도 나는 겨울이면 영화 <철도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텔런트 최불암 선생을 떠올리곤 한다. 영화 <철도원>과 아무런 관계없는 최불암 선생을 떠올리는 것은 그 분과 아버님에 관한 아주 소소한 인연 때문이다.

최불암, 1940년생. 본명 최영한. 텔런트 또는 영화배우, 전직 국회의원…….

내가 아버님에게 직접 들은, 아버님보다 11살 연하인, 최불암 선생의

인간적인 모습은 언제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곤 한다.

1929년생인 아버님은 1981년에 간암으로 별세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 철도청의 노무직 철도원으로 근무하셨다. 선로보수부터 직원목욕탕보일러 담당, 열차부품 정리, 열차 수리 등 주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5년은 운행 중인 열차에 탑승하여 비상시 차량을 점검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경부선 열차를 탄 채로 근무하는, 만약에 열차가 기계적인 고장이 나면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아버님의 근무는 하루를 24시간 종일 일 하고 다음 날 하루를 집에서 쉬는 식의 형태로 기억한다. 낮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혹시 너희 아버지, 실업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가 다반사였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차 맨 앞쪽에 운전하는 기관사실이 있고 객실과 연결되는 부분에 겨우 한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가진 작

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장소였다.

아버님은 병적으로 근검한 분이셨지만 술과 담배를 즐기셨다. 술은 소주와 안주로는 김치만을 드셨으며 담배는 최저가인 '금잔디'를 피우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1978년도의 일이다. 군을 제대하고 대학 3학년에 복학한 장형은 당시 최고급 담배인 '거북선'을 피우고 있었다. 아버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덮어두셨다. 역지사지로 내가 아버님 입장이었다면 그런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고 나의 시각에서 지난 시절을 반추해보곤 한다. 그해 어느 날, 서울 가는 무궁화 열차를 왕복으로 타고 오신 아버님은 평소처럼 매우 지친 몸으로 퇴근하셨다. "아버지 인자 퇴근하셨습니까?"

퇴근하신 아버님께 간단한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님의 얼굴은 화색이 넘쳐흘렀다. 신문에 뭇가를 돌돌 말아서 소중히 들고 계시는데 펼쳐서 보니 담배 세 갑이었다.

수정 담배.  
1978년 당시 최고급 담배는 500원 하는 거북선과 SUN이었고 바로 아래 등급의 담배로 400원 하는 '수정'이란 담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0원 하는 '금잔디'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400원 하는 고가의 담배를 세 갑이나 들고 오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가 궁금하신킨지 물어보셨다.  
“이 담배, 어데서 낫는교?”

사연은 이랬다.  
부산역, 서울행 무궁화 열차. 아버님은 어느 날처럼 기관사실과 연결된 철도원(검수원)실에 앉아계시는데 (그곳은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이다), 40대에 막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었다. 여기는 출입금지구역이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깜짝 놀라셨다. 당시 수사반장에 출연하는 유명배우 최불암 씨였기 때문이다.

“아니, 최 선생 아니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찌신 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부탁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아저씨 옆자리에 좀 앉아서 서울까지 갔으면 해서요…….”

“편안한 객실이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불편한 곳에…….”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보려고 제가 앉은 자리에 자꾸 몰려와서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저를 구경하는 시선들이 제게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

아버님은 흔쾌히 그러시라고 허락하여 검수원실 작은 의자에서 둘이서 긴 시간 동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했을 때 최불암 선생은 아버님께 신문에 뭔가를 써서 전달하며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디는 말을 하고 내렸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수정’ 담배 세 갑이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결론론적인 이야기

지만 평생을 금잔디와 백조 같은 저가 담배를 피우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고가 담배를 피우는 호사를 누리신 것이다.

그리움이 지나쳐서 딸을 만난 영화 속의 그 철도원처럼, 꿈에서 아버님을 만나기도 하고 최불암 선생을 만나 뵙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내가 최불암 선생을 직접 만날 순

없겠지만 살다 보면 앞으로 그럴 기회도 혹시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1978년 어느 날, 최 선생님으로부터 수정 담배를 받았던 철도원의 아들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아버님이 그나마 좋은 담배를 한번 피워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다.

## ‘2016년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 안내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에 본 모임은 먹거리 장터(어묵, 순대, 떡볶이, 납작만두 등)와 녹색나눔장터(천연화장품, 리폼용품 등) 부스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며,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봉사자와 함께하는 ‘해남 법정 스님 생가, 우수영’ 기행

- 일정 : 10월 24일(월)
- 장소 : 전라남도 해남 법정 스님 생가터, 우수영 장터, 대흥사
- 참가 자격 :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우선 접수(40명)
- 참가비 : 20,000원(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으로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접수 : 중앙모임 02-741-4696

## 다시 한 번 살아보자

10월 결연 대상자 - 김종수님

### 노숙생활을 하게 된 이유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시작했던 노숙생활을 끝내고 성북동의 작은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김종수 씨!

김중수 씨는 강원도 삼척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탄광의 고된 일 때문이었던지, 열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식당 등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지만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조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릉 상고 축구부에서 주전 선수

로 활약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축구선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슬픔과 꿈의 좌절에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군대 전역 후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며 차곡 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늦었지만 35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김종수 씨의 가정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왼쪽의 어깨, 갈비,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찢러 만성 폐 질환이 생겼고 다리를 절게 되어 지체 장애 5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믿고 의지하던 아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운영하던 가게를 헐값에 처분하여 모든 재산을 갖고 몰래 떠나버렸습니다. 은행과 지인들부터 빚을 내어 3년간 치료를 받은 후 수소문하여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 또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3~4,000여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고, 믿었던 아내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였는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숙자가 되었고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근로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지체 장애, 천식,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하며 미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켜주세요!

김중수 씨는 한 달에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수당, 주거급여 등으로 약 45만여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수입으로 고시원 월세 25만 원, 병원 진료비와 교통비 1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10만 원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본모임은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과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시원 월세 25만 원씩 12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려 합니다. 김종수 씨의 작은 희망의 불꽃이 쉬이 꺼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길상사 경내,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만남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접고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도 천상의 복을 짓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몇 년에 걸쳐 천륜인 부자간의 정마저 의심하며 남보다 못한 서운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으랴. 스스로 자식을 두고 불혹의 나이를 더하고도 몰랐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도 늘 사람같이 산다고 허우대 좋게 뻘뻘스럽게 얼굴 들고 활보하고 살았으며, 그도 모자라 제 자식한테는 이렇고 저렇고 교육을 한답시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살아왔다. 온전치 못한 자신이 애비라는 허물을 들고 어찌면 나 자신보다 바르고 정직하고 허물없는 자식들을 아집과 고집 그리고 비뚤어진

사고(思考)로 난도질하고 산 것이다. 어찌 천륜을 저버린 사람이 바른 사고를 접할 수 있으랴. 어찌 천륜을 의심한 사람이 인성교육이 가능하랴.

큰아들 진학을 앞두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위해 며칠간의 일정으로 귀국했다. 동생 내외가 찾아와 애걸복걸한다. “형님 제발 이번만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언제 이렇게 형님께 부탁드립니까? 이번만은 제가 하지는 대로 따라주세요”라고.

세상에 어디 내 동생 같은 동생이 또 있으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일찍이 불심이 깊어 늘 바르고 끈기만 한 동생이다. 이렇게 못난 형이니 오죽 한심했겠으랴. 어찌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으랴. 그런

데도 이렇다저렇다 지금까지 단 한번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동생이다. 그런 동생이 오늘은 아닌 것이다.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작심한 모양이다.

그간 나는 아버지와 의견 차이로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가진 자식과 못 가진 자식 간의 편견이라는 오해가 원인이 되어 이런 부모와는 천륜도 마다하겠다며 일체의 연락을 끊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시 귀국한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었고, 동생은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지금 당장 가져와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며 몇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번만 갔다 오겠다고 동생에게 다짐을 받고 함께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무장한 다음에 병실로 올라갔다.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앉아 있는 매트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밤이 늦은 시간이어서 아버지 자리에만 형제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금방 눈에 띄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몇 걸음 다가가자 갑자기 내려서 달려오시더니 나를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하시기 시작했다. 함께 입원해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며 왜 그러시냐고 달려신다. 형제들은 사정을 아는지라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살며시 병실을 빠져나갔고 아버지와 나는 부둥켜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몇 년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살아온 큰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 앓이를 하고 살았는지 짐작이 가긴 했지만, 나의 마음은 시베리아 별판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녹을 줄을 몰랐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 했고 내가 아는 아버지는 이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되레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와 용서의 말 한마

디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무토막처럼 굳게 서 있기만 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심야가 되었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난 큰아들과 떨어지기 싫었는지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병실을 나와 밖에서 밤을 함께 보냈다.

부자간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고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랴. 내 동생이 못한 형의 행동을 지켜보면서도 시시비비를 말하지 않고 늘 덮어두는 그런 마음이 왜 나에게 없었는지, 단지 동생이라는 천륜 하나 때문에 늘 참고 견디며 인내해 온 내 동생이 아닌가. 말하기는 쉽다. 생각을 앞뒤 구분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그저 내뱉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입이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슬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하며,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그러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그러하며 부자간의 관계 역시 그러하

다. 말이란 입안에 담아두고 영글어서 움이 틀 적에 쏟아야 새싹이 돋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몇 해 만에 뜻하지 않는 부자간의 재회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매번 출국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국장 안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책을 고르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아서 버릇처럼 서점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와 달리 한 권의 책과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지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스님이 알기 쉽게 불경을 풀이해 놓은 책이었다. 가장 가슴 깊이 다가온 것은 불경을 자연의 순리로 풀이한 것이었다. 사바세계의 모든 인연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때와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

실을 절실히 체감하고 산다. 하루하루 시간시간 그리고 순간순간 늘 순리에 따르고 산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연이 있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다. 오늘 당신과 나 또한 인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 아닐 때 아무리 끌어다 붙이려고 해도 그것은 역지가 되어 되레 역효과를 가져오고 만다. 내가 아버지와의 재회의 인연 또한 내 동생의 억지로 이뤄진 것 같으나 그것은 내 동생이 끈이 되어 인연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인연이 아니었다면 내 동생의 노력이 그 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때에 스님의 한 권의 책이 눈에 띄는 것도 스님과 나와의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는 크나큰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후 나는 불경 공부를 독학으로 열심히 하고 산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동몽선승과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 어린 시절 한 번의 인연을 다시금 새로운 인연으로 접하게 되었고 자

식 된 도리와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두고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심 깊은 내 동생과 스님의 책 한 권이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준 장본인이다. 만약 이러한 책과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버지와 한순간의 만남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다시금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륜의 인연을 경솔함과 거만함으로 덮어 둔 채 시절을 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아버지와 미흡하나마 원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그 날 나는 작은 미소로 아버지를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귓전에 속삭여 드렸다. 남은 저 세상에서의 인연을 내 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인 나의 소명일 것으로 믿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여의도 공원 길을 걷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앙카라공원과 셋강 생태공원 갈대 숲 길, 여의도공원 산책로, 한강 둔치를 차례로 걸으며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과 계절 따라 모양과 색깔과 향기를 달리하며 피는 각종 꽃들을 감상할 수 있음을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비 내리는 날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속삭임처럼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된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밤새 내린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심으며 지나온 날들을 뒤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바로 이곳에서 한다.

특히 생태공원 갈대 숲 길은 묵은 체증까지 깨끗이 치유되는 느낌이다. 내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 갈대 숲 길을 걸을 때면 행복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풀 한 포기 돌부리 하나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나를 반겨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안녕”이라고 인사하며 살며시 손을 내밀면 수줍은 듯 이슬방울이 잎을 타고 흐른다. 세찬 바람이 부는 날이면 “우수수” 큰 소리로 인사하는 갈대 숲 길이 있어 행복하다. 눈을 감고 걸어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이 익숙한 길이 되었다.

갈대 숲 길 걷기가 끝나면 여의도 공원 산책로로 간다. 공원 산책로를 활기차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마주친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정겹게 인사를 주고받는다. 각종 나무가 매일 매일 변화하는 모양을 살피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다. 눈썹개야광, 때죽나무, 노각나무, 산딸나무, 마가목, 개시탕나무, 털썩나무, 낙상홍, 층층나무, 야광나무, 산사나무,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팔배나무 등 나무들의 이름을 살피며 걷다 보면 어느새 공원 한 바퀴 걷기가 끝난다.

이렇게 걸으며 살펴본 나무들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 때 산길이나 숲길을 걸을 때는 내가 나무 박사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라고 자원활동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산딸나무는 6월부터 무리 지어 하얀 꽃이 피는데 네 장의 꽃잎이 마주 보기로 붙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꽃잎이 아니고 나뭇잎이 변형한 것이다. 나무의 변장술이 놀랍다. 10월이 되면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날것으로 먹어도 맛이 감미롭다.

마가목은 약재로 널리 알려진 나무인데 나뭇잎은 아카시아나무 잎처럼 어긋나기 하며 9-13개가 있다. 5-7월에 흰색 꽃이 덩어리처럼 모여서 피고 9-10월이면 여러 개의 붉은색 열매가 마치 한 개의 덩어리처럼 모여 있다. 열매는 풍증과 어혈을 풀어주고 뼈마디가 아픈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한다. 덜 익은 열매는 살균 효과가 높고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첨가물로 쓰기도 한다. 열매 외에도 껍질과 잎이 신장병이나 신경통 등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죽나무는 5월이면 2~5송이씩 모여 나무 전체를 뒤덮을 만큼 하나의 나무에 많은 꽃이 핀다. 동전 크기만 한 흰색 꽃잎 5개와 암술과 수술이 있다. 꽃들은 수줍은 듯 다소곳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핀다. 꽃은 10여 일이 지나면 지는데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수많은 열매 또한 아래를 향한다. 열매의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함유

되어 있는데 이물질은 물고기의 아가미 호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어독을 지니고 있어 시골에서 때죽나무 열매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들이 즐겁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여의도 공원의 나무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여의도 산책로 걷기가 끝나고 한강 둔치 물빛광장으로 가기 위해 <안창남 비행장 역사의 터널>로 들어선다. “땀다 보아라 안창남”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나무로 벽을 장식하고 그 위에 안창남 일대기와 사진과 기사, 안창남이 여의도 비행장을 이룩했던 쌍엽기와 금강호의 모형도를 붙여 놓았다. 오늘날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비행기로 보이지만 100년 전 그때 우리 민족 최초로 하늘을 날았을 그 비행기의 모형이니 귀한 자료임이 틀림없다.

터널을 나와 여의도 둔치 풀 내음 가득한 산책로를 걸어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밑을 통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둔치의 잔디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과 만난다. 그분들이 지나간 잔디밭은 쓰레기와 악취를 풍기던 오물은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분들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느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행복을 느끼기보다 짜증스럽고 화나게 하는 곳이 있었다. 주말만 되면 잔디밭은 각종 휴지와 쓰레기로 뒤범벅이 된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고 애완견의 배설물까지 한뼉한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벤치 위까지 마구잡이로 자리 잡고 있어 벤치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만다.

모처럼 휴식이라도 취할라치면 고성능 마이크로 떠드는 소음 또한 신경을 건드린다.

벚꽃 축제 기간이면 몰려드는 인파와 차량으로 도로 위에서 한없이 퇴근길이 길어지는 것도 짜증을 부채질했고, 세계불꽃축제가 있는 10월이면 수십만 명이 여의도 둔치를 찾아드는 바람에 통제 불능이 되는 도로

와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과 호루라기 소리, 고함,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무단 침입자와 실랑이하는 경비원의 고함, 지축을 흔드는 폭음과 음악 소리, 화약 냄새로 화려하고 장엄한 불꽃까지도 중추신경을 자극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풍경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효대교 교각마다 한강 물을 향하여 비추는 불빛과 거울 면처럼 잔잔하고 매끄러운 강물과 강 건너 강북로로 줄지어 흐르는 차량들의 불빛, 불기둥이 되어 강물에 떠 있는 고층건물, 모든 풍경이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수십 년을 살면서 어째서 오늘에야 저토록 아름다운 풍경에 전율하는지 스스로 놀랐다.

그랬었구나! 온갖 부정적인 시선으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까지 짜증스럽

고 불편함으로 느꼈었구나! 그래서 저토록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을 감상하지 못했었구나. 못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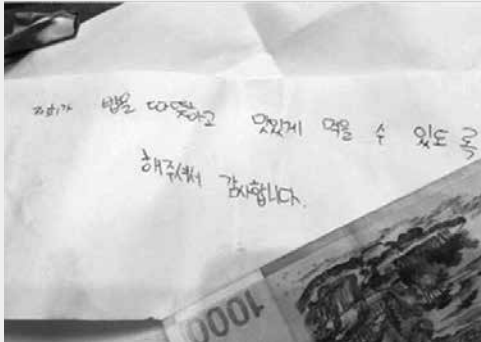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보면 행복이 느껴지고, 찌는 듯한 폭염으로 목말라 하는 나무들을 볼 때는 같이 목말라 했다.

봄이면 멀리 가지 않고서 벚꽃구경을 할 수 있으니 좋은 일이고, 수십 명이 몰려드는 불꽃축제를 현관문만 열면 편안한 자세로 감상할 수 있으니 어찌 선택받은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고 다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 김정희 대장님은 1970년대부터 보육원과 양로원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어느날 개천에 빠진 한 시각장애인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1987년부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자원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요청을 하면 무보수로 자원활동가가 파송되어 도움을 드리는 '부름의 전화'를 29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호부터 이달 호까지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글로 나눠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마음이 따뜻하면 꽃은 저절로 핀다



중국집 배달원을 한 시간 동안이나 울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빈 그릇과 함께 건넨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사연은 어느 밤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송 하지만 음식 값은 중국집을 지나가면서 널 테니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자장면 한 그릇만 배달해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배달해 드려야죠”라고 대답하고는 알려준 집으로 갔더니 예쁜 꼬마 숙녀가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며 자장면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그릇을 수거하러 갔더니 자장면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있어 놀랍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릇 속에서 “열어 보세요. 택배 아저씨”라고 적혀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본 순간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천 원짜리 지폐와 함께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예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평소 배달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그였지만 ‘오늘은 너 무너무 눈물이 난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연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혹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따뜻하면 내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내가 사는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입니다.

### < 이달의 명언 >

머리가 똑똑해 울은 소리 하면서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해 무언가를 나누어주려고 궁리하는 사람,  
친구의 허물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 혜민 스님 -

\* 출처 : 따뜻한 하루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시는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녹색나눔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 2010년 그 해, 엄마와 나의 길상사

글 • 이경숙(대원심, 길상사 신도)

법정 스님 가시던 해, 2010년 길상사에 불교대학이 개설되고 난 1기생이 되었다. 그해 아들의 대학교 입학식을 마친 2월 26일, 10년간 다니던 능인선원에서 길상사로 적을 옮겼다. 능인선원에서도 33기로 불교대학 과정을 수료했지만 제대로 경전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였다. 길상사 신도가 되었을 무렵 이미 법정 스님은 와병 중이셨으나 물론 그때 몰랐다. 20대 쯤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은 후 강연회에서 한 번 뵈고 후 50대가 되도록 길상사를 모르고 살았다. 언제든 길상사 가면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으려니 생각만 하고…….

3월 11일 스님이 입적하셨다. 그 전부터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보살들은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고 부모 잃

은 자식처럼 애통해했다. 언젠가는 스님을 뵈기를 기대했던 나 또한 망연자실했었다. 다행히 당시 덕현 주지 스님의 토요일법담과 더불어 새로 시작한 경전공부로 불법공부의 환희심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을 추슬렀다.

올해 길상사 불교대학이 7기라고 한다. 그리고 덕일 스님이 새롭게 주지로 오셨다. 지난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대 학생들에게 연등접수 자원봉사가 맡겨졌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3주 앞둔 어느 수요일 저녁 봉사하러 절에 올라갔다. 몇 명이 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달랑 나 혼자였다. 덕분에 도량 가득 색색의 연등에 불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길상사의 저녁 무렵과 차츰 어두워져 깜깜

한 밤에 불 밝힌 연등의 장관을 혼자 만끽하는 행운을 누렸다.

환하게 불 밝힌 연등을 보니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자식들의 생일과 부처님오신날 그리고 동지 때는 꼭 해운대 폭포사에 올라가 연등을 다셨다. 등달기 전 혹 얘기할 기회가 되면 “지등은 지가 달아야 된대이.”

“그래도 니가 못 오니까 너저 식구 등은 내가 달았대이. 등 값은 니가 내래이!” 하셨다. ‘자기 복은 스스로 닦는 거라’ 하시며…….

물론 돈을 더 보내 드렸지만, 기어이 지난 일이라며 엄마가 안 받으신 적도 많았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연히 엄마의 기록을 보게 되었다.

엄마는 불전함에 넣을 단돈 천원이 없어 “부처님! 용서하세요.”하고 절만한 뒤 법당을 나오신 적이 많았고, 꽤 오래 공부하신 어느 작은 선원에서 가난한 노인 보살이라고 홀대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 글을 읽고 가슴이 저렸다. 마음 같아서는 그 선원에 찾아가

그 법당 보살에게 따지고 싶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빈자의 제왕 부처님의 참 법을 모르고, 빈손으로 절만 하고 나오며 부끄러워하셨을 우리 엄마를 더 참담하게 만든 그 법당 보살이 괴씸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엄마 생각에 절에 가면 꼭 불전함에 얼마라도 보시하는 습관이 생겼다.

혼자 일주문 안마당에서 연등접수 봉사를 하던 중 안내소 유리창에 붙은 ‘송광사 수계 산림 법회’ 포스터를 우연히 보았다.

이것 땀에 내가 그리 망설이다 기어코 저녁 무렵 길상사 올라온 거구나! 싶었다. 세 분의 스님 사진 가운데 지현 스님이 계신 것이다. 길상사 홈페이지에서 송광사 수계 산림 법회 광고를 봤을 때만 해도 무박 2일 기도와 법문으로 꼬박 밤을 새는 일정에 망설이다 신청을 안 했는데, 일주일 앞두고 절에 와서야 계사 스님으로 지현 스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난 무조건 가야 한다. 스님 뵈러…….

난생처음 겪는 5월 초 폭우와 강풍

으로 송광사 전각 사이엔 작은 개울이 생겨 콧물 흘려가는 빗물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옷과 신발을 다 적셨다. 7시에 도착해 잠시 짐을 두고 법당에 들어가니 벌써 법당 안은 빼곡히 신도들이 앉아 있었다. 9시 봉축점등식은 비바람으로 법당 안에서 마당을 내다보며 진행하고 이어 자정까지 철야법문이 계속되었다. 피곤을 견디지 못해 숙소로 사용하는 지대방으로 돌아와 두어 시간 누웠는데, 어느 보살님의 코고는 소리와 이가는 소리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3시 새벽예불시간, 법당에 다시 가니 자정부터 계속 기도한 보살들이 꽤 많다. 5시 다 되어 보살계 관정의 식이 시작되었다. 처음 해 보는 의식이었다. 조용히 줄을 서 차례 기다리는 의식이 엄숙하고 아름다웠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아침 공양 후 받은 법명은 ‘大圓心’ 크게 두루 원만하라.

계사 스님에 지현 스님이 올라 있으니 나의 세 번째 법명은 지현 스님에게 받은 것이라는 생각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그 전에 능인선원과 길

상사에서 받은 법명이 각각 있었으나 이제 새 법명을 가슴에 새겨야겠다. 지현스님은 9시에 시작한 수계식에서 뵈 수 있었다. 이어 계속된 보조국사 진영 이운 의식과 16조사 이운 봉안식이 다 끝나자 정오가 되었다. 법당 가득하셨던 스님들이 법당을 나서신다.

지현 스님을 가까이 뵈고 인사 나누고 싶어 계단 밑 마당에서 있는데 스님들이 다 나오신 후 지현 스님과 또 한 분 스님이 노스님을 부축해 법당을 나서신다. 땀물에 내려서 신발을 신고 또 돌계단을 내려오시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두 분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부축하며 시봉하신다. 아직비가 오고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물웅덩이를 피해 한없이 느린 걸음으로 가시는 세 분 스님을 따라가며 겨우 지현 스님과 눈을 맞추었다.

“서울 길상사에서 온 다천입니다.” 인사드리니, “응 그래? 이번엔 길상사에서 몇 명이 왔노?” 돌아보시는 스님 시선이 따스하다.

늘 웃음 지으신 얼굴에 그사이 못

뵈 3년 동안 검은 반점이 더 생기셨다. “25명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잘 왔네.” 하신다.

“스님 건강하십니까?” 하니, “응, 건강해…” 대답하신다.

그러나 더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다른 노부부 신도가 같이 따라가고 있고, 노스님을 부축하신 두 분 스님도 이미 연세가 있으신 터라 불안하다. 점심 공양할 건물 앞까지 따라가선 스님이 방 안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돌아섰다.

끝내 “스님! 부산 가면 찾아뵈게요.”라는 말씀을 못 드렸다. 혹시 허언이 될지도 몰라서…….

옆에 있던 길상사에서 함께 온 신도가 “참 대단하시지요? 노스님 부축하시는 모습이” 라고 말을 건넨다. 나는 “속가 부모님보다 더 극진하게 모신다고 들었네요.” 했다.

세 분 스님 간의 부모 자식에 결코 못지않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돈다. 내가 잡아드린 엄마 손은 가시기 전 한 달 뿐이었는데…….

지현 스님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관음사 주지이다. 관음사는 송광사 부산 분원이고 불교계에서 유일한 호스피스 양성기관인 환희불교복지대학을 운영하며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길상사 인연으로 엄마 가시기 이틀 전 부산대학병원 완화병동에 지현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을 누르던 고통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엄마를 분당 서울대 병원에 모셔 큰 수술을 받게 하고, 종암동에서 분당으로 옮겨볼며 엄마 병간호를 다니느라 여름이 더운지 어떤지 알지 못했다. 엄마가 부산으로 구급차에 실려 가신 뒤, 바로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가 되는 바람에 또 옮겨볼며 속이 다 뒤집어지는 광란 상태에 빠진 나는 며칠 후 엄마 보러 내려갈 때 길상사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 밖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천만다행으로 불교대학에 당시 해관 스

님이 계셨는데, “부산에 계시는 엄마가 평생 부처님 의지해 살아온 불자인데 지금 위중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매달리니, ‘관음사 주지 스님이시다.’며 지현 스님 전화번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뵈지 않은 스님이 길상사 인연으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것이다.

그 무더운 9월 초 한낮의 타는 듯한 무더위에 먹빛 가사 장삼을 떨치듯 입으신 스님은 얼굴이 빛나고 당당한 풍채였다. 나는 스님을 뵈자마자 영영 울며 엄마가 의식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식만 하였고,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손을 가만히 잡아보시더니, “아직 의식이 있으니 손을 잡아 드리고 좋은 말과 염불을 계속해라.” 하셨다. 곧이어 스님은 엄마 손을 잡고 염불을 시작하였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낭랑한지, 병실 안에 이웃 종교의식을 행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덮고 복도로 울려 퍼졌다. 엄마는 스님이 오시기 전까진 계속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냈는데 스님의

염불이 시작되자 고요해졌다. 마치 기쁘게 염불을 같이 하시길라도 하는 듯이… 그 신비로운 상황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나는 정말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하는 딸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스님은 우리 엄마와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엄마가 평생 의지하신 부처님 법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듣게 해드렸으니 길상사 아니었으면 어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그 후 49재를 마치고 스님을 뵈러 갔다. 가슴 아파하는 내게 스님은 간곡하게 타이르셨다. “네 엄마는 이제 네 안에 계신다. 네 몸이 엄마다. 엄마는 영원히 네 안에 같이 살아 계신다.”

엄마는 스님이 오셔서 염불해준 이틀 뒤 돌아가셨고, 부산의료원에 빈소가 마련됐을 때 스님은 상좌스님과 함께 오셔서 영정을 진설하고 아미타경을 30여 분 염송해 주셨다. 슬픈 와중에 그렇게 스님이 와 주신 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속으로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이게 다 엄마 홍복(洪福)이예요. 엄마가 부지런히 닦으신 복이지요. 그죠?”

생각해보니 완화병동에서 처음 뵈는 스님 모습은 지장보살이셨다.

나중에 찾아뵈는 스님은 그때보다 훨씬 연세 있으시고 마르신 몸에 어찌 보면 병색까지 있으셨는데, 엄마가시기 이틀 전날 뵈는 스님은 다른 모습이었으니 엄마 마지막을 도와주시러 오신 지장보살님이 아니셨을까? 그토록 엄숙하고 고요하고 깊은 모습의 스님이 엄마 임종 전후 오셔서 불경을 읽어주시니 엄마는 바로 극락세계로 가셨을 것만 같다.

엄마 장례가 끝나고 초재 시작 전에 스님을 뵈러 갔었을 때 스님은 손수차를 끌며 주시면서 두서없이 눈물 콧물 흘리며 그간 정황을 말씀드리는데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며, “아버지를 용서하고 반찬이라도 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러라. 장애아 조카를 엄마 마음으로 보살펴라. 네 안에 엄마가 있으니 엄마는 없어지신 게 아니라 영원무궁하신 것이다.” 라는 따

뜻한 말씀을 해주셨다. 물론 중생이라 스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지금도 지현 스님을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고마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빛을 진 느낌이다.

길상사도 내게 그런 절이 되었다. 길상사 극락전에는 엄마 영가등이 모셔져 있다. 매년 등(燈)을 달아야 마음이 안정된다. 내년 정초까진 법당 안에 모셔져 있을 것이다. 언제든 길상사에 가면 늘 엄마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길상사는 내게 특별한 절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우란분절 같은 행사가 있는 날은 엄마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날들이다.

연등접수 봉사하는 김에 나도 연등을 하나 달았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절에 올라가 찾아보니 극락전 앞마당에 환하게 내 이름이 적힌 연등이 높이 달려있었다. 해마다 다는 연등이지만 연등을 달고 나아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불자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행사 10월 17일 진행

본모임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팀은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하는 효실천의 날'이란 이름으로 어르신 2,000여 명 대상으로 나눔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나눔행사에는 어르신 점심 식사 후 떡과 음료수, 안경당이수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늘 참여하는 정기자원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자원활동가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치 나눔 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

**\* 전화 말벗 자원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활동(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돕우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 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활동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을 선정하여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 '갈이가치'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 녹색나눔장터 안내

- 장터 참여 품목 :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화장품&친환경 세제,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공예소품, 친환경 먹거리 등, 개인 재활용품 베품시장 참여
- 시간 : 10월 23일(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길상사 뜨락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 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 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3일(일)오전 11시 / 가족의 마음을 여는 공감 대화법 /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 원장) / 설법전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6,7,20,21,27,28일)/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 (13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10,17,24,31일)/매월 첫째 일요일(3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노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및 나눔행사 진행 : 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5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5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23일(넷째 일)/길상사 경내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6,13,

20,27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 23일(넷째일) / 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달 매주 수요일(5,12,19,26일)
- 숲기행 : 1일(토) / 충북 옥سون봉 충주호 주변의 절경, 단양 단양장
- 봉사자와 함께하는 '해남 법정 스님 생가, 우수영' 기행 / 24일(월) / 전라도 해남 법정 스님 생가터, 우수영 장터

####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급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나눔 센터)
- 자비의 도사탁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사탁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화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한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선포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회차 기도가 8월 28일(일)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0월 1일(토) 오후 6시~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선포 받습니다.

### 대입수능 100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입재8월10일/회향11월7일)
- 장소 : 극락전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0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법사스님 : 주지스님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 8일(토) 오후 8시 ~ 10월 9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

- 일시 : 10월 8일(토)
- 장소 : 성북로 (성북동 주민센터 ~ 신한은행)

### 중앙절

- 일시 : 10월 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10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10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당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자비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안내

길상사 종무소에서는 자비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모아 주신 정성은 길상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쓰입니다. 또한 모금액은 연말정산 기부금에 포함해 드리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축원해 드립니다.

## 한국실명예방재단 무료안검진

- 일시 : 10월 30일(일)
  - 장소 : 설법전
  - 대상 : 60세 이상 길상사 저소득층 신도
  - 방법 : 10월 23일 이전까지 길상사 종무소로 신청 (02-3672-5945)
-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 연담 이태영)에서 성북구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00명과 60세 이상 길상사 신도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돋보기와 안약을 무료 배부,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사진공양

##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10월 1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10월 1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중양절	10월 9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15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18일(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24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8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 마음을  
어디에 매어 두어야 한단 말인가.  
찾을 수 없는 마음이라면 텅텅 비워 버려야 한다.  
텅 빈데서 비로소 메아리가 울린다.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빈 마음이  
훨훨 날 수 있는 자유의 혼을 잉태한다.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소우주이다.

-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